

“지역환원이냐” vs “자금력이냐”

광주은행 인수전 치열…향후 전망은

지역자본·대형금융지주 등 7곳 경쟁

10월 예비실사·11월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은행 인수에 모두 7곳이 예비입찰서를 제출해 최종 인수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수·합병(M&A)의 승패는 자금력에 달려있어 대형 금융지주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과 상장성이 커 지역 여론의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오후 5시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JB(전북은행)금융지주, BS(부산은행)금융지주, DGB(대구은행)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7곳이 예비입찰 신청서를 냈다.

앞서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JB금융, 신한금융 등 3파전 구도로 각축이 예상됐지만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광주은행 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까지 가세하면 서 경쟁구도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지역환원을 주장하며 인수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는 광주·전남상

공인연합은 이날 입장표명을 내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예비입찰제안서 평가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은행의 민영화가 성공적인 지역환원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되도록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현재 10여개 지역 연고 기업과 재무적 투자자(FI)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인 자금조달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광주은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도 지역환원 여론을 등에 업고 입찰에 참여했다.

BS금융이나 DGB금융이 광주은행을 가져가면 영·호남에 두루 영

권소시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자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자금력이 있는 곳과 사전 교감이 있다는 설도 나온다.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지방 금융지주 3곳은 시·도 단위에 국한된 영업 구역의 한계를 넘어 외연을 넓히려면 이번 인수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JB금융은 광주은행 인수를 통해 호남권 대표은행을 꿈꾸고 있다. 자산 14조원의 JB금융이 19조원인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BS금융, DGB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뒤치를 키울 수 있다.

BS금융이나 DGB금융이 광주은행을 가져가면 영·호남에 두루 영

업 기반을 둔 광역화가 이뤄진다. 특히 총자산 46조원의 BS금융과 37조원의 DGB금융이 20조원의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자산규모가 단숨에 60조여원에 이르게 된다.

신한금융은 광주은행 인수로, 상대적으로 영업기반이 약한 광주지역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광주·전남지역 지점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21곳으로 부산·경남지역 58곳에 비해 적은 편이다.

광주은행은 5월 말 기준 총 자산 21조204억원에 자기자본비율을 13.40%,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354억원, 총수신 14조5397억원, 총대출 13조2966억원의 우량은행이다.

광주은행 매각은 10월 초 인수후보자 선정과 예비실사, 11월 최종 입찰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확인 실사 및 협상진행, 계약체결, 금융위 인가 등을 과정을 거친다.

최종 인수자는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대 산학협력단, 디자인 지원 사업 결실

‘태양광 LED 가로등 등 6개 상품

‘2013 GOOD DESIGN’ 마크 획득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단의 가족회사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23일 광주대에 따르면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이봉규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이석현·김용도 교수가 기술지도 한 영안 시각환경디자인업체인 미로의 ‘태양광 LED 가로등 Solarem 시리즈’ 등 지역 및 중소 디자인 관련 업체의 6개 상품이 최근 ‘2013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했다.

‘GOOD DESIGN’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지난 1985년부터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부여하는 마크다.

미로의 ‘태양광 LED 가로등 Solarem 시리즈’는 보행로 및 공원 등에 설치되는 가로등으로, 나무 위로 비추는 달빛을 연상시키는 친자연주의 개념을 이용, 도시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디자인해 본상 후보로도 선정됐다.

광주의 시각 포장디자인업체인 인디디자인의 ‘전통 손자수 시리즈’는 동양적 정서가 드러나도록 산수화를



‘태양광 LED 가로등 Solarem 시리즈’ 디자인.

배경으로 디자인하고 제품마다 얇은 선과 속지의 색을 다양하게 해 현대적인 세련미를 나타냈다.

화순의 디자인업체인 인스나인의 다음도 차주전자가 ‘멀티 티켓’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상품으로 개발됐으며 순천을 상징하는 흑두루미와 먹의 번짐 효과를 접목해 순천시와 동양의 미적 감각을 시각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트타일’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시목지로 유명한 구마제도로변의 용벽에 설치된 ‘남도 이순신길 백의종군로’ 그림 타일로, 이순신 군인의 백의종군로를 기록하고 후

대에 걸쳐 남길 수 있도록 내구성과 심미성, 관리의 용이성이 탁월한 그림 타일로 제작, 설치했다.

이밖에 서울의 패션잡화업체인 노블러스컴퍼니의 가방·핸드백·지갑

컬렉션인 ‘소울스타 트레블 콜렉션’과 디자인바이의 ‘스마트걸제단말기 PAYJET’도 각각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했다.

광주대는 대학과 지역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맞춤형 산학협력 체제인 ‘광주대학교 가족회사 발대식’을 가졌으며 사업특성화 분야인 광·옹복합, 라이프케어, 디자인, IT 분야의 유망 기업들과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CHANNEL A www.ichannelA.com

JK상조, 광주축산·송정농협 조합원에 장례 서비스

장의 리무진·장례지도사 컨설팅 지원

광주 향토기업인 주 JK상조(대표 제인기)가 올해 초 광주축산농협 및 송정농협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력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K상조는 협약을 통해 광주축산농협과 송정농협의 직원 및 조합원의 장례 발생 시 유가족 입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장의 리무진(시내 60만원 상당·시외 90

만원 상당)과 3단 근조화환(시중 가 10만원 상당), 장례지도사 컨설팅 등 100만원 상당의 도움을 주고 있다.

협약은 광주축산농협과 송정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동안 쉽게 다루지 못했던 장례에 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JK상조를 찾으면서 이뤄졌다.

광주축산농협 관계자는 “협약 체결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장례문제로 경황없는 조합원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는 데서 진일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동 조합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JK상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설립된 상조회사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출자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술엔 피부에 관심을

23일 (주)광주신세계 ‘더 페이스샵’ 매장에서 피부보습제품인 ‘허니매니아 바디 버터’(200ml·2만4000원)와 ‘허니매니아 크림 바디 스크럽’(200ml·2만4000원)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제일모직 패션사업 에버랜드에 넘겨

첨단 소재사업 역량 집중

12월 1조500억에 양도

제일모직이 직물·패션 사업을 삼성에버랜드에 넘기고 첨단 소재사업으로 변신한다. 직물사업으로 창업한 지 59년만이다.

제일모직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소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직물·패션 관련 사업 일체를 1조500억 원에 삼성에버랜드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자로 관련 자산과 인력 등을 모두 에버랜드로 이관할

계획이다.

제일모직은 패션사업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자재료·화학 등 소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계초일류 소재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제일모직은 이미 소재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받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문업체인 독일 노바밸리디를 인수해 첨단 소재기업으로의 변신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조사 응답 불응 4개업체

통계청, 사상 첫 과태료

통계청이 통계 조사에 응답을 거부한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조사에 거부한 4개사에 대해 지난해 말 과태료를 부과해 언제나 40만~50만원씩 총 190만원을 징수했다. 통계청장은 지난통계 등에 한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끝내 거부하면 통계법에 의해 소정의 징벌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

